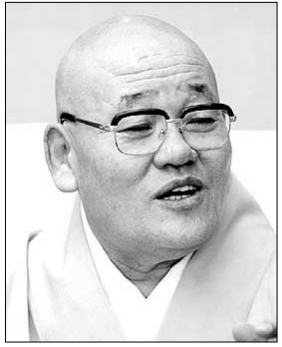


“검은 안경쓰고 보면 검게 보여...”

법장 스님, 박물관·‘월간중앙’ 등 최근 종단 상황관련 입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이 8월 24일 불교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단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불교 중앙박물관 문제와 관련 “공사 계약서가 4개년 점에 대해 물었다. 정 주임(전 실무담당자) 말이 예상 애드립(시공사)에 부가세 별도인 69억원 계약서를 잘못 전달해 다시 부가세 포함한 62억원 계약서를 전하면서 이전 것을 파기했다고 했다. 또 34억원과 28억원 계약서는 예상애드립에서 세금감면 때문에 요청해 자신이 기안하고 도장을 찍어줬으니 이 또한 회수해 파기했다고 했다. 원가계산은 또한 ‘왜 투철자와 상의했냐’고 물으니 ‘잘못했다’고 대답하



라”라고 밝혔다.

월간중앙 8.9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8월호는 종단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겠지만, 9월호는 검은 안경을 쓰고 보니 모두 검게 보이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것은 대척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

라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특히 최근 종단 상황과 관련 “총무원장 임기가 1년 4개월 남았는데 편하게 걸어가게 해야 종단도 살고 나도 산다. 도중 하차하면 종단만 추해진다. 종단만 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끌어내린 사람은 편안하겠는가. 문제는 항상 연속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장 스님은 중앙총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총무원 복지 개선 차원에서 “집 없는 총무원들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 총무원들끼리 조합을 결성해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이것은 내 임기 중에 꼭 실현할 것이다. 내년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군포교 조계종 독자행보 ‘안될 말’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일면 스님에 ‘어필’

군 포교와 관련해 천태종이 조계종의 독자행보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8월 25일 조계종 군포특별구상 일면 스님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군포 특별구 설치가 조계종 일면도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법불교적 차원에서 군 포교를 지원해 왔는데 이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는 군포교구가 조계종 위주로 구성되면서 이웃종단 배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판단된다.

운덕 스님은 이어 “군포교를 조계종이 독점하고 다른 종단의 진출을 막는 상황을 국방부가 용인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방부에 질의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승개방 등의 문제 때문에 8월 16, 18일 태고종과 진각종을 연이어 방문한 일면 스님은 “신중종교들도 군포교를 하겠다고 나서서 만큼 군포교 개방은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운덕 스님에게 ▲군승과전 문제 다룰 중 단협의체 구성 ▲논산현련소 수계 법회의 순차적으로 종단별 주관 등을 제안했다.

강유신 기자

한·스리랑카 불교대 교류논의 기량자나 부의장 법장 스님 예방

기량자나 구나와데나 스리랑카 국회부의장이 8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양국 불교대교 교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량자나 구나와데나 스리랑카 국회부의장이 “스리랑카가 팔리 대학교 동국대나 중앙승가대 등 한국의 불교계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상호 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부의장은 “조만간 공식 제안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이사장 징계 결의 조계종 동대조사특위

조계종 동국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토진)는 8월 25일 중앙총회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서울지검에 관련사안에 대한 조속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9월 초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동국대 이사장 현재 스님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영축총림 방장후보 초우 스님

만장일치 추천...중앙총회 추대절차 남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8월 22일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초우 스님(사진)을 차기 방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원명 원산 목산 현문 스님 등 20명의 방장 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해 만장일치로 초우 스님을 방장 후보로 추대했다.

초우 스님은 “방장 후보 추대과정에서 문중간의 접음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문중의 화합과 불교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스님은 “방장 추천 과정에서 생긴 문제의 근원이 문중간의 갈등이었다”고 말하고 “차기 주지는 경봉

문중의 직임자로 임명할 것을 대중 앞에서 약속했다.”

이로써 통도사는 월하 스님 임직이후 1년 8개월간 방장 공석 기간을 마감하고, 중앙총회에서 초우 스님의 대한 최종 추대를 남겨 놓고 있다.

초우 스님은 1973년 통도사 주지, 81년 중앙총회 수석 부의장, 81년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현 영축총림 부방장을 역임 했다.



양산=천미희 기자



국제교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인들이 통해 삼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

“한국 사찰체험 잊지 못할겁니다”

외국인 청년 16명 삼화사에서 2주간 템플스테이

국제워크캠프기구(IWO) 주최 국제교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프랑스와 일본·독일·영국 등 5개국 젊은이 16명이 통해 삼화사에서 2주간의 템플스테이 및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8월 7일부터 20일까지 동해 삼화사에서 수해로 무너진 칠성탑을 복구하고 삼화사 앞 무릉계곡을 청소하는 작업을 했다. 또한 틈틈이 주지 원명 스님과 선문담, 새벽예불과 다도, 참선 등을 체험하며 한국불교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은비 기자

불교지식정보사업단 출범

조계종 포교원, 포교사 50명 참여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각종 유명 포털 사이트의 불교관련 정보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검색사이트의 왜곡된 불교정보 시정을 위한 ‘불교 지식정보사업단(가칭)’을 8월 25일 발족했다.

사업단 단장은 양승홍 조계종 포교사단장, 총괄팀장에는 방재수 포교사가 선임됐다. 사업단은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의 포교사 50여명으로 구성됐다. 포교사들은 ‘네이버 지식 IN’ ‘아후! 지식검색’ ‘Daum 키워드 지존’ 등 유명 지식공유사이트의 불교질문을 검색, 분류한 뒤 답글을 올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은비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선거 돌입

9월1일 공고 24일 선거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2004년 5월 통합신도회 출범 후 처음으로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5월 일선에서 물러난 백창기 전 회장의 후임자를 찾기 위한 것.

조계종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전수, 이하 선거위는 9월 1일 선거를 공식 공고하며 4일까지 선거인단 등록을 받는다. 선거위는 또 6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24일 총회를 통해 새 회장을 맞는다.

유철주 기자

포교·신도단체실무자 연수교육 실시

조계종 포교원은 8월 23-24일 양주 송추 유스호스텔에서 포교·신도

단체 실무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에는 중앙신도회, 서울광역시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여성개발원 등 포교원 산하단체 실무자 28명이 참가했으며 ‘조직활성화 전략’ ‘비영리단체의 이익모델과 자생적 토대 마련’ 등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은비 기자

소림사 창건주승계 ‘무효’ 조계종 법규위 결정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8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이 2003년 11월 4일 종인 스님으로 소림사 창건주 권한승계를 결정했던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종립대학에 청소년학과를...

포교연구원, ‘청소년 포교...’ 워크숍 개최

청소년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불교를 지도할 청소년지도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단 내 청소년지도자 유실율이 높다.

1995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와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의 전체 지도자 수는 6천여 명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1578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포교연구위원회가

내 내 각종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것 등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 역시 “타종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청소년 관련학과를 설립하고 종교의식이 내재된 청소년 복지사 등을 배출하고 있다”며 불교종립학교 내 청소년학과 개설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8월 25일 개최한 제1차 포교연구위원회 워크숍에서 이경석 도봉고등학교 교감에 의해 확인됐다.

워크숍에서 ‘불교 청소년지도자 육성방안’을 발표한 이경석 교감은 이러한 현황을 짚은 뒤 스님교청소년 지도자 육성업무를 포교원의 주요 업무에 포함시킬 것 △실행기관을 선정해 연구사업으로 운영한 후 일반화 시킬 것 △중

이와 함께 동국대 사회복지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개편해 수도권에 필요 한 복지사를 양성, 사회복지학과 내 청소년복지학 전공을 두어 청소년복지사 양성, 체육학과를 증원해 청소년체육지도학을 전공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자유토론에서는 청소년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은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종단발전과 화합을 위한 전국선원수좌의 호소와 제안

“우리는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본다. 그 길은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아닌 모두를 향상시키는 길이다. 갈등을 부정하기 보다 갈등자체가 본래 공(空)한 것임을 보여 주셨으며 다시 지혜와 자비를 이를 구축시켰다. 이처럼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징하게 보여 주셨다.”

이글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노동조합 창립선언문’ 서두에 나온 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아닌 모두를 향상시키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의 분별 아닌 모두를 향상시키는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갈등을 부정하기 보다 갈등자체가 본래 공한 것을 보고 있는가?” 우리 모두 정직하게 자신을 향하여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이 물음앞에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종단구성원 우리 모두는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의 분별 아닌 모두를 향상시키는 길을 가려고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을 부정하기 보다 갈등자체가 본래 공한 것으로 보도록 끊임없는 정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불제자는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일부 총무원들이 시도하는 노동조합의 결성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종현 종법의 테두리안에서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불교 교단의 전통과 불교문화, 불교인의 정서에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의 분별 아닌 모두를 향상시키는 길을 장애하고 갈등자체가 본래 공한 것으로 보기도는 노동쟁가의 야기되어 갈등을 더욱 키워갈 위험이 너무도 큼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출발한다하더라도 필경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갈등 구조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선원 수좌회에서는 일부 중앙총무원들이 시도하는 노동조합결성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좌스님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다수 스님들은 모두 같은 심정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법으로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설사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종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총무원 불자들의 애로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불교를 사랑하고 종단을 아끼는 그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불교를 사랑하고 종단을 아끼려면 전국본사주지스님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수좌스님들과 대다수의 스님들이 왜 노동조합만 안된다고 반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신고를 철회하고 총무원 불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총무원은 노동자라기보다 삼보를 외호하고 전문성을 통해서 교단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불자입니다. 총무원 불자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종단을 위해 봉사하는 총무기관의 소임자 스님들도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린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삼수하여 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총무원 불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닌 중앙총무기관의 예산은 전적으로 삼보장재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종도들은 삼보장재로 바쳐지는 분담금의 그 많은 분량이 중앙총무기관의 운영비(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는데 과연 중앙총무기관의 그렇게 많은 인력과 그에 따른 많은 인건비에 비례하여 종단발전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종단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종단에 불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에 역풍이 되어 그동안 애써 가꾸어온 긍정적인 새싹들마저 뿌리째 뽑아버릴 거센 비바람이 될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종단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는 우리 모두 땀이픈 자기정화와 참회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종단내의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종단이 안고 있는 폐단, 선거제도 등 비 불교적, 반 승가적 제도를 부처님 교법과 율장정신에 입각하여 개혁하기 위해 제방의 대덕스님, 중진스님 등 불교계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개혁의 틀을 짜야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불조(佛祖)와 대중앞에 각자의 허물을 참회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우리 수좌스님들도 대중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부처님과 역대조사스님들과 불자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대중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 위해 참회어린 마음과 뼈를 깎는 자세로 가일층 분발하여 더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불기 2549년 8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 수좌회